

# “연휴기간 해외 장 만나보세요”... 증권사, 거래 이벤트 봇물

**NH 상위거래 美주식 랜덤 지급 한투 거래액 따라 4종목 추천 지급 삼성 투자지원금 100달러 지원 유진 10년전 가격 구매 이벤트**

증권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를 모시기 위한 이벤트를 적극 펼치고 있다. 추석 연휴에는 국내 증시가 휴장한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일평균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169% 증가하기도 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외화증권보관잔액은 107조 8900억원(921억달러)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22억달러)과 비교했을 때 23조원 가량 규모가 커졌다.

특히 미국주식 보관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7일 기준 미국주식 보관잔액은 66조 6400억원(569억달러)으로 전체 외화증권보관잔액의 61.8%를 차



뱅크스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



해외주식 백블로 이벤트

지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자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도 이에 발맞춰 서학개미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이벤트가 이목을 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최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1주를 랜덤으로 지급한다.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 스타벅스, 나이키 등 NH투자증권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한

상위 종목들 중 30여개 종목을 엄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규고객과 올해 해외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신청 후 해외주식을 거래하면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4종목(DHY·ICLN·GM·나이키)의 주식을 추천해 지급한다.

삼성증권도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

자지원금을 최대 100달러까지 지원한다. 우선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하며, 이후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8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11월 23일 이후 자동 출금 처리된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주식을 10년 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색 이벤트를 내놨다. 10년 전 가격이 적용되

는 이벤트 종목은 구글(2011년 9월 1일 종가 기준·266달러), 테슬라(4달러), 애플(13달러), 스타벅스(19달러)로 총 4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천을 통해 총 30명에게 해당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차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10달러를 제공하고, 매월 50명을 추천해 미국 우량주 1주를 지급한다. 지급되는 주식은 웨브론, AMD, IHS마켓 등 미국 대표 우량주 5종목 중 매월 첫째 주 110달러에 가장 가까운 종목으로 결정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치를 내세웠지만, A증권사에서 거래하다가 B증권사에 새로 계좌를 만들어 혜택만 누리는 체리피커(골라 먹는 사람·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 고객들도 많은 건 사실”이라며 “이벤트로 유입된 고객들에게 편리한 투자 경험을 제공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엇갈리는 공공기획... 재개발 😊 재건축 ☹️

**재개발·도시재생 추진 속도 재건축, 주민 반대 등 제동**

서울시가 도시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획 사업이 엇갈리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추진속도가 빠른 반면 재건축은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

공공기획은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해주는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서울시 버전으로 불린다. 그러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지와는 달리 재건축은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기획을 적용한 민간재개발은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송인을 비롯해 현재 11곳이 주민 동의서를 받는 중이며 총 20여곳에서 공공기획 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이 같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비사업의 최후 보루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기획에서는 재개발조합에게 응적률 상향 처럼 별도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지만 동시에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부채납을 늘리는 식의 반대급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차별화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기획은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도시재생, 공공주도 개발보다 효과적인 계획이다”라며 “서울시의 ‘공공기획’은 기존의 공공재개발·재건축, 2·4대책의 노후도심정비사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기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반면 재건축 시장에서는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의 경우 일부 주민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지와는 달리 사업 진행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

공기획 재개발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뉴타운 해제구역이나 도시재생사업지역 등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재개발에 비해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주민 동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6개 자치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공공기획 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 등 6곳에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복합개발(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 사업의 경우 통합공모 결과 총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우 기자 ywi964@

## 현대중, 공모주 청약 경쟁률 404.3:1

55조8891억 증거금 모여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 18억6297만주가 접수돼 55조8891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고 9일 밝혔다. 최종 경쟁률은 404.3대 1(증권사 간 중복 청약 제외)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전체 공모주(1800만주)의 25.6%인 460만8003주를 일반투자자 청약에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으로 각각 50%씩 배정했다.

지난 2일과 3일 공모가 확정을 위해 실시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1633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181억주(1130조원 규모)를 주문했다. 경쟁률은 유가증권시장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 1836대 1을 기록했고, 최종 공모가는 희망범위 최상단인 6만원으로 확정

된 바 있다.

이번 일반투자자 청약의 주관사별 경쟁률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407.6대 1, 한국투자증권 401.5대 1, 공동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 416.1대 1, 케이비증권 397.1대 1, 인수회사인 삼성증권 392.8대 1, 대신증권 383.7대 1, DB금융투자 415.0대 1, 신영증권 400.6대 1이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현대중공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준 덕분에 기업공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기업 성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청약을 마친 현대중공업은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양유경 기자 noon@

## SK에코플랜트 노르웨이 인프라 사업 진출

고속국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SK에코플랜트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인프라 민관협력(PPP)사업에 진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노르웨이 공공도로청(NPRA)에서 발주한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호주 맥쿼리, 이탈리아 위빌드와 투자 컨소시엄 소트라링크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SK에코플랜트의 투자 지분은 20%다.

이번 사업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과 인근 외가든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연장 960m(주경간 600m)의 현수교와 총 연장 4.4km의 터

널 4개소가 포함된다. 완공되면 베르겐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달러(약 2조 5000억원) 규모로,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단일 인프라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에코플랜트는 에프씨씨(FCC·스페인), 위빌드와 함께 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한다. SK에코플랜트의 시공 지분은 30%다.

실시협약과 금융약정 체결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에 돌입해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7년부터 소트라링크가 25년간 운영한다. /정연우 기자

## ‘평촌엘프라우드’ 689가구 일반 분양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은 오는 1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평촌 엘프라우드’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로 22~110㎡,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임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49·59㎡ 68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는 ▲49㎡A·B 77가구 ▲59㎡A·

C 365가구 ▲59㎡B·D 247가구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 중 청약 통장 가입 2년 경과,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한 세대주만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분양 관계자는 “커뮤니티 공간에는 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클럽 등 공



‘평촌 엘프라우드’ 투시도.

용시설과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연령대에 적합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면서 “채택근무자와 학생들이 업무와 그룹스터디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공유오피스 등도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